

강진군 군동면 상습 침수 피해지역 드디어 해결 된다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지구 선정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어오던 강진군 군동면 풍동지구가 2019년 배수개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군동면 풍동지구가 2019년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강진군은 3년에 걸쳐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와 함께 저지대 농경지 8.6ha 복토를 실시해 배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군동면 풍

동지구 70ha 농경지가 상습 침수로부터 해방되고 배수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배수가 잘되지 않는 저습 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작물생육에 좋은 토양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탐진강이 흉수 때마다 수위가 상승해 수량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저지대에서는 적은 비에도 침수

가 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강진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과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지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이번 사업추진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침수피해는 물론 소득증대 및 재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국비 100%인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영림 기자

신안군, 도서지역 등 식수난 해결 위해 힘모은다



신안군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 신안군 다목적 회의실에서 17일 '도서지역 가뭄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에는 신안군을 비롯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전남도·완도

적 특수성 때문에 좁은 유역면적, 염지하수 문제 등으로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 시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안군은 압해와 압태를 잇는 천사대교가 지난 4월 개통되고 꽃과 수산물에 이용한 다양한 축제가 연이어 열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작년에 비해 식수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업무협약 참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전라남도과 함께 도서지역 가뭄 해소를 위하여 식수전용 저수지 및 중부관망양상수도 공급 등 상수도 SOC 확충, 비상급수 대책 마련 및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노력을 다할 것을 협약했다.

완도 토요일 싱싱콘서트 16주간 대장정 시작

9월 28일까지 다채로운 무대 선보일 예정



오는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는 '2019 완도 토요일 싱싱콘서트'의 대장정을 알리는 개막식이 지난 15일 토요일 밤, 완도해변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각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가족 단위 관광객 및 단체 관광객 등

2천 2백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초청 가수 공연, 완도문화예술인공연과 완도 특산품을 이용한 경품 추첨, 심심푸드코트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 행사 공연에는 초대 가수로 홍경민과 김완선이 출연, 특히 김완

선의 무대는 어린 아이들과 춤을 추는 등 그야말로 가수와 관객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행사장 내 심심 푸드코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회장 정혜숙)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해조류 파전, 완도군청년연합회(회장 김용배)에서 운영하는 푸드코트에서는 치킨과 생맥주 등이 판매돼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도 했다.

오는 22일에는 트로트의 여신 금잔디와 개그맨 손현수, 완도문화예술인 등이 출연하고, 9월 28일까지 16주 동안 매주 토요일(18:00~21:00)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자유의 중심지 완도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다"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청정바다 완도의 싱싱한 수산물로 보양도 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토요일 밤엔 토요일 싱싱콘서트를 즐기며 행복한 여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영수 기자

진도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진도군이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 동안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군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중 미세먼지 등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변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노후

화물차와 버스 중·대형 경유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대상 차량 내부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정차식 방법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

비·점검해야 한다.

단속결과 정비·점검 차량이 기간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행정지명령에 불응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진도군 환경진행과 환경정책담당 관계자는 "이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생장점 마늘 종구 농가 보급 나서

무안군이 마늘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수량 증대를 위해 마늘 종구 농가 보급에 나선다.

군은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무안농업협동조합(조합장 : 노은준)과 생장점종구 재배농가를 육성하여 바이러스에 이병되지 않은 생장점 마늘 종구 130여 톤을 생산해 관내 재배농가에 종구용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생장점 마늘은 바이러스가 적어

생육이 왕성하고 잎마름병에 비교적 강해 수확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

또, 군은 무안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종구 관내 마늘종구의 50% 경신을 목표로 무안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장점 종구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조직배양



실에서 마늘 생장점이 바이러스에 이병되지 않은 것에 착안 생장점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이를 포장에서 증식하여 무병마늘 종구로 생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해남군,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속속 시행

화산 관동지구 7월 착공

해남군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속속 시행한다.

해남군은 화산 관동지구에 국비 96억 원을 투입해 배수장 1개소, 배수로 2.2조 1.6km를 신설하고, 18.5ha를 매립하는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최근 실시

계를 완료하고 전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오는 7월 공사에 착공, 오는 2021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영암읍 자율방범대 창립 30주년 현판식 개최

영암군 영암읍 자율방범대는 지난 15일 영암읍 자율방범대에서 서산석 국회의원, 손갑식 부군수, 우승희 도의원, 박찬종 군의원, 노영미 군의원, 나희주 읍내파출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역대 대장단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읍자율방범대 창립 30주년 기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은 창립 30주년(1989년~2019년 상반기) 연혁보고, 격려사, 축사에 이어 영암읍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회장의 간판 및 현판 제작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동안 영암읍자율방범대는 야간 방범순찰 활동을 통한 생활치안과 범죄예방, 민경협력치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음식과 다과를 나누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맺힘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